

# ‘2015 전국양계인대회’에서 양계 단합의 장 마련



박광식 지회장

1994. 참진농장 대표

현 재. 전북도지회장

삼락농정 운영위원

전북농민연합회 이사

오는 9월 4~5일까지 1박2일간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2015 전국양계인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를 앞두고 본회와 함께 주관을 맡은 전북도지회 박광식 지회장을 만나 연중 가장 큰 규모의 대회를 전라북도에서 처음 개최하게 된 소감과 추진내용에 대해 들어보았다. 더불어 전북도지회장 취임 이후 지역 내 활동사항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했다.

## 지회장님, 전북도지회장 취임 이후 그간 활동사항과 근황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는 1994년 산란계 농장을 시작하면서 20여년이 넘는 세월동안 양계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외 활동으로 전북양계농협 이사와 감사로 지냈고, 전북도지회 채란분과위원장 및 김제지부장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2012년 전북도지회장으로 취임해 만 3년째 도지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취임 당시 열악한 도지회 운영으로 존폐 위기에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지역의 양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원가입 유도과 각 지역별 회원들이 집결할 수 있는 지부 설립이 필요로 했습니다. 전북도지회 산하 4개 지부를 시작으로 회원 배기는 물론 지부 배가 운동을 꾸준히 진행한 결과 3년 만인 올해 익산종계, 고창채란, 김제채란, 김제육계, 남원육계, 정읍육계, 부안, 고창육계지부까지 총 8개 지부로 확대됐습니다. 적극적인 지역 활동으로 지부와 도지회간 유대를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대외활동으로 전북도정 농림·농업·농촌이 함께 즐거운 삼락농정 운영위원이자 전북농민연합회 이사로 참여하면서 전북도의 열악한 양계농가 현실을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지역의 양계산업 발전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북도 예산 20억원의 자금지원을 받아 지역 계란 집하장인 두원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됐습니다. 한편, 도지회 이회완 전무는 10년째 도지회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재정에서도 누구보다 솔선수범해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축산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지역 양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 금년 도지회 사업 및 활동계획이 궁금합니다.

올해 도지회 주요 사업계획은 농가가 필요로 하는 양계자재를 정부나 지자체지원금 보조를 통해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 예로 폐가축 처리기, 계분처리기, 왕겨 살포기 등 예산 지원을 요청했고

올해 여름은 마른장마로 폭염에 따른 피해 방지책으로 환기시설 개선을 위해 쿨링시스템 등 정부 보조를 지원한 상황으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역 양계농가의 회원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회·지부가 힘이 실리기 위해서는 농가 회원들의 결속과 단합이 중요합니다. 회원 배가 운동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 박광식 전북도지회장(가운데), 이희완 전무(우), 유미숙 실장(좌)

###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2015 전국양계인대회’가 개최됩니다. 소감은?

‘2015 전국양계인대회’가 오는 9월 4일(금)부터 5일(토)까지 1박2일간 전북 김제시 모악산 유스호스텔에서 ‘하나된 양계인! 새로운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먼저, 전국의 양계인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전라북도에서 마련하게 된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양계협회 52년 역사 상 양계인 대회가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는 건 역사 이래 처음으로 기억됩니다. 본회를 중심으로 도지회·지부 회원이 한데 모여 열정과 단합으로 양계인의 권인과 산업이 발전하는 장에 참여하게 된 것에 감개무량 할 따름입니다. 본회와 함께 주관을 맡은 전북도지회는 전국의 양계농가가 한자리에 모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단합을 도모하는 자리로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지회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양계인의 자긍심과 권익보호를 위하고 양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양계인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의 양계인 여러분들은 부디 많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계농가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FTA 체결로 본격적으로 개방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양계인의 설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2003년부터 끊임없이 발생하는 AI로 양계업은 위기로 내몰아가고 있습니다. ‘2015 전국양계인대회’를 통해 전국 양계인이 톨톨 뭉쳐 단합과 화합의 열정으로 한마음 되어 우리의 권익이 보장받고 위상을 높여가는 대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취재 | 장성영 기자  
ch-spirow@hanmail.net

